

백범평화상 (중고등부)

이하늘 (사모아 7)

: Talofa(탈로파). 저는 사모아 한글학교 7 학년 이 하늘 입니다.

Talofa 란 제가 태어나 살고 있는 사모아 어로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입니다

저는 백범 김구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에 두 번째 참가를 했는데 이번에 김구 평화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수상 소감을 쓰면서 책 속에 김구선생님의 정신이 들어 있는 몽우리 돌이 다시금 하나 둘씩 생각이 납니다. 아마 몽우리 돌은 평생 나의 정신과 마음을 일깨워 주는 좋은 스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을 받는다는 소식과 함께 나의 가슴을 설레가 한 것은 백범 김구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수상자들을 초청하여 수상식과 학술대회 탐방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가슴이 설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빠가 7 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이 있어 수상식과 학술대회에 참여를 못해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도 있지만 감사한 것이

더 많습니다. 백범 김구선생님에 대한 책을 읽고 나서 나의 조국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을 알게 되었고, 이제 자랑스런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학생으로서 더 많이 공부를 해 훗날에 훌륭한 우리 나라 문화를 알리는 몽우리 돌 문화대사 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상식에 참여를 못하는 대신 아빠가 한국에 가면 서울 용산에 있는 백범 김구 기념관을 꼭 한번 같이 가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와 꿈을 갖게 해 준 백범 김구 선생님과 김구 재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Fa'afe'tai (파아페타이) 감사합니다.

이성재 (앤아버 7)

나는 처음 글을 적기 시작할때는 김구 선생님을 잘 몰랐습니다. 글을 다 적고 나서 김구 선생님을 더 잘알게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대단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상을 받는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상을 받았을까? 내가 볼때도 잘 못 적은것 같은데....'

나는 김구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분이 계셔서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또한 이 대회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백범 김구재단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는 콜로라도에 가는것도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다른 글을 쓴 친구들을 만난다니 참 이상합니다. 그럼 모두들 콜로라도에서 만나요.

이유진 (열린문 10)

저는 와싱턴 지역에 열린문 한국학교를 다니는 10 학년 이 유진입니다.

처음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낯선이름이 적힌 두꺼운 책을 받아들고 고민 했던게 사실입니다.

솔직히말해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영어로 된 책이아닌 한국말로 쓰여진 책을 읽는일은 그리 흔하지 않기에 그 정도의 두께에도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잘한 결정이었다고 느껴졌던건 김 구선생님의 일생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을뿐 아니라 한국근현대사의 흐름까지 맛볼수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분의 어렸을적부터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크나큰 열정을 키워나가셨던 모습이 지금의 좋은 환경속에서 감사할줄 모르고 불평을 일삼으며 살고있는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또한 배운것을 평생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힘쓰셨던 모습, 무엇보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같은 목표라면 넓은 아량으로 포용하며 이끌고 나가셨던 리더쉽은 저에게 앞으로 나아갈 바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김 구 선생님을 알게 해주신 열린문 한국학교와, 시간에 쫓겨 아쉽게 끝을 내야했었기에 별 기대없이 잊고지냈던 저에게 이토록 기쁜소식을 전해주신 NAKS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옆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이해시켜주시느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어머니께도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도 저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정의롭고 현명하게 세상을 품을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시애틀통합 7)

수상자 수상 소감 : "김구 평화상" 이라는 귀한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김구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고, 그 분의 위대한 일생에 대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권해 주신 시애틀 한국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특별히, 교장 선생님께서는 제가 글을 쓸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셨는데, 교장 선생님의 격려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한국학교는 단순히 한국어만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김구 선생님과 같은 한국의 위대한 인물들을 배울 수 있는 귀한 배움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주말에 한국학교에 가는 것이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늦잠을 자고 싶고, 쉬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한국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억지로라도 저를 이불 속에서 나오게 만들었던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의 수고와 엄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저를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김예성 (열방한국학교 10)

안녕하세요. 이번에 김구 평화상을 받게 된 뉴욕 열방 교회 한국어 문화학교에 재학 중인 10학년 김예성 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보내주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어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동북부에서 해마다 열리는 한.영 번역대회를 통하여서 일제시대나 이민역사, 근대사는 접해 본 경험이 있고, 고대 한국역사는 드라마나 다른 기회들을 통해 수박 겉 핥기로 배웠는데, 이번 김구 독후감 쓰기 대회를 통해 분단의 역사와 정치, 그리고 중심 인물인 김구선생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짧은 책이었지만 그 안에 백범 선생님의 애국심과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의지는 정말 닮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K-POP, K-Drama 로 한국이 더 많이 알려졌지만 , 제 생각에는 그러한 유행을 따르는 한국 문화도 아주 중요하지만 , 전통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인물들을 배우며, 그들의 삶과 정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회를 통해 내가 한국이 아닌 미국 땅에서 한국인으로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와 상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니 (밸류 8)

안녕하세요,

저는 시애틀 밸류 통합 한국학교에 다니고 있는 9학년 이제니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한국에는 부모님을 따라 방학때 몇번 놀러간게 다 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저를 어릴때부터 한국학교에 항상 보내셨고, 저는 그곳에서 한글과 한국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사람이라는걸 항상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제6회 백범 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에서 백범 평화상을 받게되어서 정말 기쁩습니다. 처음으로 덴버에 갈 기회도 생겨서 벌써부터 여름방학이 기다려집니다.

저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르게 아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서 많은것을 배울수있고 백범 김구 선생님처럼 용감하고 존경할만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사를 배우면서 아프거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 속에서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일제시대때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제가 배우고 느낀 역사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두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